



朝鮮時代 朝鮮 『大乞』 諺解類 考察：『乞』
慣用表現 中心

メタデータ	言語: ja 出版者: 日本韓国研究会 公開日: 2022-09-06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金, 美順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hdl.handle.net/10466/00017802

日本韓国研究

第1号

朝鮮時代に 쓰여진 『老乞大』 諺解類에 관한 考察

— 『老乞大』 諺解類의 慣用表現을 中心으로 —

金 美順

2021年9月30日

日本韓国研究会
Japan Association of Koreanology

朝鮮時代に 쓰여진 『老乞大』 諺解類에 관한 考察

— 『老乞大』 諺解類의 慣用表現을 中心으로—

金 美順 (關西大学大学院博士後期課程)

<要旨>

本研究は朝鮮時代に書かれた『老乞大』諺解類の文献に現れた慣用表現の文章的特徴を研究することが目的である。朝鮮時代の初級中国語の会話書として最も権威的に使われた『老乞大』には107の文段におよそ18の慣用表現の用例が書かれていた。その慣用表現に現れた特徴は、慣用表現の始まりの部分に、原文では「常言道」で一貫して書かれた例が諺解文では、表記法が文章の中でそれぞれ異なっており、また通時的にも異なった表記法で書かれていたことが分かった。そして原文で書かれた慣用表現が諺解文では書かれなかった例もあり、原文自体が時代によって少しずつ変わって書かれていたことが窺えた。

また、朝鮮語の慣用表現ではあまり現れないような文章の形式的特徴として対句の技法が本研究対象に多く使われ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した。

키워드 노걸대,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관용 표현, 속담

1. 들어가며

조선시대에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회화서였던 문헌이 있었다. 『노걸대』와 『박통사』이다. 그 양서를 살펴보면 초급 교재의 『노걸대』에는 107의 스토리에 관용 표현이 18가지의 관용 표현이 쓰였었고, 중급 교재의 『박통사』에는 106의 스토리에 무려 70가지 이상의 관용 표현이 쓰여 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회화서가 조선시대에 유명한 언어 학자가 한글로 번역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옛 한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전문 용어로 언해문이라고 한다.

그 양서 중에 본 논문에서는 『노걸대』 언해류의 문헌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어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세와 근대국어를 중심으로 한 언해문에 나타난 관용 표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고 1 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는 관용 표현이라는 표현보다는 속담으로 많이 불리어진다. 중세와 근대 국어,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관용 표현과 속담의 차이는 어떤지 알아보자. 중세나 근대 국어에서 속담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대 국어의 연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 중에서 문금현(1996)은 관용표현의 생성 배경과 유래, 생성과정 및 변천과정, 그리고 신생과 소멸에 관해 밝힌 바가 있다. 현대 국어에서 속담에 관한 연구로 김경렬(2017)은 한국어 교육을 위해 활용되는 속담의 문장·의미적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한국어 문법 교육에 속담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속담은 옛적부터 민간에 전해져 온 쉬운 격언과 잠언 또는 속어라고 했다. 그리고 관용 표현은 두 가지 이상의 단어가 고정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낼 경우 그 단어 구성에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사전의 정의를 근거로 속담의 정의에 대해 고찰해 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과 관용 표현을 같은 카테고리라 하지 않고, 다른 카테고리라 분류하고 있다. 즉 속담은 관용 표현의 하위어로 볼 수 있다.

연구자의 견해로서, 최창렬(1999)은 속담은 일정한 형태 속에서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깨져있는 모든 형태의 말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언중의 경험과 지혜와 교훈에서 우러나온 진리를 지닌 간결하고 평범하고 은유적인 표현의 관용어라고 밝히고 있다. 즉 관용어와 속담은 같은 범주에 있다고 하였다.

민현식(2003), 주경미(2008)도 관용 표현과 속담을 분명하게 분류해서 말하고 있다. 민현식(2003)에서 관용 표현은 일정 시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언어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관용 표현을 고사성어 수수께끼어 인사말 속담으로 분류하고 속담의 특성은 민중성·향토성·구비성·시대성·간결성·가변성·교훈성이라고 했다. 주경미(2008)도 대부분의 논저에서 관용구와 관용 표현은 속어, 속담, 고사성어 등을 포함한 상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에 속담은 앞뒤에 적힌 도입 부분과 인용부까지 형식적으로 완전한 하나의 문장일 것, 의미적으로는 여러 구성성분의 의미가 모여서 비유적인 의미를 갖을 것, 화용적으로는 교훈성과 풍자성을 띄고 있고 대중으로부터 구비성을 갖고 관습적으로 쓰이는 구성체라고 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한국어의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노걸대』의 원문은 중국어이다. 그런

이유로 한국어에서 쓰이는 관용 표현과 중국어에서 쓰이는 관용 표현의 쓰임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어의 원문인 『노걸대』를 중심으로 연구의 성과를 밝힌 양오진(2010)은 원문이 중국어이기 때문에, 그 원문에 쓰여진 관용적 표현을 ‘숙어’로 정의하고 연구 분석하였다. ‘숙어’란 언어 중에 고정된 단어 결합이나 문장 형태로서 사용할 때 임의로 그 구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성어·諺語·격언·관용어·혈후어¹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중국 학계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² 그러나 중국의 『漢語』를 중심으로 원문과 언해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박재연·최정혜(2011)는 그 『漢語』의 문헌에 나타난 관용적 표현을 숙어로 보지 않고, ‘속담’으로 정의하였는데, 속담으로 보기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덜한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 연어처럼 동사구인 표현도 있다고 했다. 다만, 박재연·최정혜(2011)는 속담으로 정의한 각각을 모두 전형적인 한국의 속담 형식에 비견하여 진정한 속담인지 아닌지를 엄격하게 따지기보다는 한국의 속담 개념과 중국어의 속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어의 속담은 諺語·혈후어·관용구 등이 모두 포함되는 다소 광의의 개념이라고 했다.

이상으로 한국어 관련 연구자와 중국어 관련 연구자의 견해를 살펴봤다. 속담과 관용 표현에 관하여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순수 한국 문헌이 아닌 중국어의 원문을 토대로 한 언해문이기 때문에 그 언해문에 쓰여진 관용적 표현을 한마디로 속담이나 숙어 등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먼저 밝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노걸대』의 원문을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인 언해문으로 언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언해문 안에 관용적 표현으로 쓰여진 표현을 통사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넓은 의미로 보아 ‘관용 표현’으로 통칭하고, 『노걸대』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내용 중에서 특징적으로 분석되어진 용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3. 『노걸대』 언해류의 해제

송기중(1995)은 『노걸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노걸대』는 조선전기에 한자로만 기술하여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로서 1 권 1 책으로

¹ 歇后語·歇后語혈후어: 박재연·최정혜(2011)에는 혈후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숙어의 일종으로 대부분이 해학적이고 형상적인 어구로 되어 있음. 원칙상 앞 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은 수수께끼 문제처럼 비유하고 뒷부분은 수수께끼 답안처럼 그 비유를 설명함. 보통 뒷부분은 드러내지 않고 앞부분만으로 뜻을 나타내는데 앞뒤 부분 모두를 병렬할 수도 있음. 수사법의 하나로서 문예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 성어(成語)와 마찬가지로 많이 쓰임” 박재연·최정혜(2011:142-143)에서 『중한사전』(2002)의 재인용.

² 양오진(2010)에서 『辭海』(1997:246)의 재인용.

『노걸대』라는 서명이 『세종실록』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그는 『노걸대』의 첫 글자 ‘노(老)’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 해석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노형(老兄)·노사(老師)·노관인(老官人) 등과 같은 중국어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경칭접두어(敬稱接頭語)로 이해하는 해석이라고 했다. 즉 노걸대의 의미는 국어로 ‘중국(인)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노걸대』와 쌍벽을 이루었던 한학서 『박통사(朴通事)』가 중국인이 박씨(朴氏) 성을 가졌던 조선 통사를 부르는 호칭이었다면, ‘노걸대’는 조선 통사가 성명을 모르는 중국인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추측하였다.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 관하여 박태권(1995)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번역노걸대』는 조선전기의 학자 최세진이 『노걸대』를 언해하여 종종 연간에 간행한 중국어 학습서이며, 서명이 책에는 『노걸대』라고만 되어 있으나, 원본인 『노걸대』와 1670년의 『노걸대언해』와 구별하여 『번역노걸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

『노걸대』는 상인의 여행과 교역에 관한 회화집이므로 이 책은 독특한 대화체의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후대의 『노걸대언해』와의 비교에 의하여 국어의 변천을 연구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 『노걸대언해』는 조선 현종 때 정상국이 이 책의 앞서 간행된 『번역노걸대』를 참고하여 언해한 것이라고 했다. 『번역노걸대』는 16세기 초에 나왔고, 『노걸대언해』는 17세기 후반에 나왔으므로, 어휘와 문법 등이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그 표기에 반영된 변화는 국어사의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했다.

양오진(1998:69-70)은 『노걸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노걸대는 모두 107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고려 상인 일행 네 명이 고려의 말과 배, 인삼 등을 가지고 중국 북경으로 행상하러 가는 도중, 중국 상인 왕 씨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들 일행이 동행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기본 줄거리를 이루면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갖고 간 물건들을 다 처리하고 고려에 가져다 팔 물건들을 구입한 후 중국 상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끝이 난다. 따라서 목적지로 가는 도중의 여관 투숙, 물건을 팔고 살 때 벌이는 흥정 등 여행과 무역에 관한 내용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표 1 『노걸대』 언해류의 서지사항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언해자	최세진	정상국
언해연대	1510년	1670년
표지서명	上권 「老乞大」潮, 下권 「老乞大」	「老乞大諺解」
판본	上下 2권 2책 목판본	上下 2권 목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자의 좌우에 이중으로 주음함. • 한어문의 한 구절이 끝나는 곳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해의 체제는 번역노걸대와 동일하나

체제	언해함. • [△][○]과 같은 문자가 사용됨. • 방점으로 중세국어의 성조 표시함.	언해상의 표현이 다름. • 성조를 표기하는 방점을 사용하지 않았음.
크기	세로 33 cm, 가로 22 cm	세로 35.6 cm, 가로 22.8 cm
장수	上 71 장, 下 73 장	上 64 장, 下 66 장
사용용도	중국어 학습서(회화문)	

※이 표는 양오진(1998)을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했음.

4.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고찰

본 연구의 관용 표현이라고 판단한 선별 기준은 선행 연구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중국어인 『노걸대』의 원문을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인 언해문으로 번역한 것을 중심으로 쓰여진 107 개의 문단에서 관용 표현이라고 판단한 문장을 선별하였다. 특히, 관용 표현이 시작되는 부분에 ‘常言에 닐오되’로 쓰였으며, 종결 부분이 ‘하니’, ‘하니라’, ‘하니니라’ 등으로 끝나는 문장을 주목하여 선별하였다. 그 결과 『노걸대』에서 선별된 관용 표현의 용례는 18 가지의 용례가 선별되었다. 그 용례를 모두 부록에 첨부한다.

그 선별된 용례 18 가지의 관용 표현 중에 4 가지의 용례가 ‘상넷 말소매 닐오되’, ‘常言에 닐오되’, ‘常言에 닐오되’, ‘상언에 니르되’로 각기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같은 통사 안에서도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서 시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걸대』에 나타난 관용 표현이 시작되는 부분의 용례를 다음에 제시한다.

1) <원문> 常言道：馬不得夜草不肥，人不得橫財不富。9b

a- 상넷 말소매 닐오되 마리 밤 풀 못 먹으면 술지디 아니하고 사름이
뵈 천 곳 橫財 못 어드면 가슴머디 못하니라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人不得橫財不富。’ (翻譯老乞大上 32a~32b)

b- 常言에 닐오되 말이 밤 여물을 었디 못하면 술지디 못하고 사름이 뵈
財物을 었디 못하면 가움여디 못한다 하니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老乞大諺解上 29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말은 밤 여물을 먹지 못하면 살이 찌지
 아니하고 사람은 뵈 재물(횡재)을 얻지 못하면 부유해지지 못한다

하였다³

2) 〈원문〉 常言道：常做賊心，莫偷他物。 10a

a- 상넛 말소매 날오되 당상 도적 막스물 막고 느미 것 도적 말라

흐느니라 常言道 ‘常防賊心，莫偷他物.’ (翻譯老乞大上 34a)

b- 常言에 날오되 상상의 도적 막음을 막고느미 것 도적 말라 흐느니라

常言道常防賊心莫偷他物。(老乞大諺解上 30b)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항상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였다

3) 〈원문〉 常言道：老實常在，脫空常敗。 31a

a- 상넛 말스매 날오되 고디시그니는 당상 잇고 섭섭흐니는 당상

패한다 흐느니라 常言道 ‘老實常在，脫空常敗.’ (翻譯老乞大下 43a)

b- 상언에 니로되 고디식흐니는 상상에 잇고 섭섭흐니는 상상에 패한다

흐느니라 常言道 老實常在 脫空常敗 (老乞大諺解下 39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성실한 것은 항상 오래가고 허황한 것은 항상 패한다 하였다

4) 〈원문〉 常言道：掩惡揚善。 31b

a- 상넛 말스매 날오되 사오나온 일란 그시고 도흔 일란 퍼낼 거시라

흐느니라 常言道 ‘隱惡揚善。(翻譯老乞大下 44a)

b- 상언에 니르되 사오나온 일란 그이고 도흔 일란 들어나게 하라 흐느니라

常言道 隱惡揚善。(老乞大諺解下 40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나쁜 일은 덮어두고 좋은 일은 드러내라 하였다.

위 1)~4)의 용례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상넛 말소매 날오되’, ‘常言에 날오되’, ‘常言에 날오되’, ‘상언에 니르되’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常言道’라고 표기되어

³ 이하 현대어로 번역한 부분은 양오진(2010)을 인용하였다.

있다.

이 한자어 ‘常言道(상언도)’를 분석해 보면 ‘常(상)’은 ‘상넛’, ‘言(언)’은 ‘말소매, 말스매’, ‘道(도)’는 ‘닐오되’이며, 기본형은 ‘닐다’이다. 이 ‘닐다’의 이형태를 고명균(2019)은 대역어로 ‘말하다, 길, 도리, 터ㅎ’가 있고, 그 활용형으로 ‘닐오되, 니르거날, 니르되’ 등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기본형 ‘닐다’는 현대 국어에서 주로 ‘말하기를, 이르기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닐다’의 동의어로 ‘孔子曰’의 한자어 ‘曰(왈)’이 있는데, 일본어로 ‘イワク’는 기본형이 ‘닐다, 말하다’인데, 「‘曰(왈)’의 대역어로 ‘ㄱ로되, 니르되, 닐오다, 니로다, 굴오다」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뜻 풀이를 ‘가로다, 이르다, 일컫다, 말내다’⁵라고 설명했다.

이 ‘曰(왈)’은 현대 국어에서 ‘가로되, 가라사되’ 라고도 쓰이고 있는데, 본고의 관용 표현에서는 이 ‘曰(왈)’의 쓰임이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常言道(상언도)’의 ‘常言’에 관한 의미가 박성훈(2012:500)에서 「습관적으로 자주하는 말 곧, 속담이나 격언」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급 중급어 『노걸대』에서는 주로 습관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구체적으로 일컬으며 속담을 말하는 ‘曰(왈)’이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

이와 같은 관용적 표현에 관하여 박재연·최정혜(2011)는 철학적이거나 이치와 관련된 심오한 의미는 갖지 않으면서 굳은 형식으로 쓰이는 관용구, 앞뒤 부분으로 나뉘어 수수께끼처럼 앞부분으로 뒷부분을 추측하게 하는 혈후어, 특별히 비유적인 의미를 갖지는 않으면서 일상적으로 잘 어울려서 쓰는 상용구(연어 구성)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예문 1)~4)까지 다룬 ‘常言道’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음 <표 2>에 제시한다.

표 2 ‘常言道’가 쓰여진 빈도(4/18)와 각 언해문의 표기 대조

빈도	노걸대	번역노걸대	노걸대언해
2	常言道	상넛 말소매 닐오되	常言에 닐오되
1	常言道	상넛 말스매 닐오되	상언에 니로되
1	常言道	상넛 말스매 닐오되	상언에 니르되

다음은 『번역노걸대』에는 쓰여 졌던 관용 표현이 『노걸대언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용례가 있었다. 그 예를 다음에 제시한다.

⁴ 고명균(2019:79)에서 박영섭(2012)의 재인용.

⁵ 고명균(2019:79)에서 장삼식(1972)의 재인용.

5) 〈원문〉 休道黃金貴, 安樂最直錢。 21a

- a- 황금이 귀하다 니르디 말라 편안호미샤 빈소미 하니라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翻譯老乞大下 4a)

〈현대어〉 황금이 귀하다 하지 말라, 편안함이 가장 값지다 하였다

위 예문 5)a 의 예문은 『번역노걸대』의 예문이다. 그러나 그 용례 자체가 『노걸대언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노걸대』의 원문에서 표기되었던 ‘最直錢’이 ‘直錢多’로 한자어 표기가 『번역노걸대』에서는 다르게 쓰였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예문 5)의 통사적인 특징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이 대구의 기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재연·최정혜(201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구적 표현에 관한 구체인 분석을 하였는데, 속담 표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라고 했다. 대구는 전달하고자 하는 비유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위 예문 5)는 ‘니르디 말라’의 선행절의 서술어가 후행절 ‘빈소미 하니라’의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적 형식으로 상반되게 표현되어 대구를 이루고 있어 대조적 대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걸대』의 언해문을 살펴보면 대구 표현들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노걸대』 언해문에서는 조건적 대구 표현이 18 가지 용례 4 가지 용례에서 나타났다. 다음 예문에 조건적 대구 표현이 쓰인 용례를 제시한다.

6) 〈원문〉 三人同行, 小的苦。 10a

- a- 세히 혼 디 길 네매 저므니 슈고흐느니라 ‘三人同行 小的苦’
(翻譯老乞大上 34b)

- b- 세 사롬이 흥희 네매 저므니 슈고흐느니라 三人同行小的苦
(老乞大諺解上 31a)

〈현대어〉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 나이 어린 사람(젊은 사람)이 고생을 한다

7) 〈원문〉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 12b

- a- 쏘 아니 니르느녀 천 리엿 나그내를 도히 보와 보내어 만 리에 일후를

옴골 디니라 却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 (翻譯老乞大上 44a)

b- 쏘 아니 니르느냐千里엇 나그내를 도히 보와 보내미 萬里에 일흠을
던코저 흠이라 却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老乞大諺解上 39b-
40a)

<현대어> 천리 가는 나그네를 잘 살펴 보내면 만리에 이름을 전하게
되리라

위 예문 7)을 살펴보면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하는 어미가 ‘보내여’, ‘보내미’로 쓰였다. 그 뜻을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보내면’으로 번역이 되는데, 연결어미 ‘-(으)면’에 후행절의 마지막 서술어인 종결어미가 ‘-니라’의 조건적 대구 표현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6)의 a, b 에서도 ‘-녀매~-ㅎ느니라’가 ‘-하면~-한다’의 선행절과 후행절이 조건적 대구로 표현되어 조건적 대구 표현으로 쓰였다고 본다.

다음은 대등적 대구 표현이 쓰여진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 예문을 다음에 제시한다.

8) <원문> 官憑印信, 私憑要約。25a

a- 구의엔 인을 믿고 아르매는 괴약을 미들 거시니

官憑印信, 私憑要約。(翻譯老乞大下 19b)

b- 구의논 인신을 믿고 스스논 언약을 미들 써시니

官憑印信, 私憑要約 (老乞大諺解下 17b)

<현대어> 公的인 일은 官印(印信) 의거하고 私的인 일은 약속(계약)
의거한다 하였다

9) <원문>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12a

a- 일즉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내를 에엿비 너기고 나뭇
수를 탐하면 취한 사름을 앗기느니라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杯惜醉人。(翻譯老乞大上 42a)

b- 일즉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되이 나그내를 에엿비 너기고 나뭇
술을 탐하면 취한 사름을 앗기느니라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老乞大諺解上 37b)

<현대어> 나들이에 익숙한 사람이 나그네를 편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취한 사람을 아낀다

위 8)의 예문은 선행절에서 연결어미 ‘-고’와 후행절의 마지막 서술어인 종결어미 ‘-(이)니’가 서로 대등적으로 대구를 나타내는 대등적 대구 표현의 예이다.

또한, 예문 9) a, b 에서는 선행절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네를 에엿비 너기고’와 후행절 ‘술을 탐하면 취한 사롬을 앓기니라’가 연결어미 ‘-고’로 쓰여 대등적 대구 표현으로 이어지면서 각 절 안에서는 ‘-(으)면~니라’의 조건적 대구 표현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예문 9)와 같은 수법이 예문 1) a, b 에서도 나타 났는데, 선행절 ‘물 머그면 술지디 아니고’와 후행절 ‘물 어드면 가스며디 물느니라’가 연결어미 ‘-고’로 쓰여 대등적 대구 표현으로 이어지면서 각 절 안에서는 ‘-(으)면~니라’의 선행절과 후행절이 조건적 대구 표현으로 쓰여 졌다. 다만 예문 1)의 b 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모두 ‘디 못다’의 장형 부정형식으로만 쓰여진데 반하여 예문 1) a 에서는 선행절 안에서 단형과 장형 부정형태인 ‘못’과 ‘지 못하다’가 번갈아 가며 쓰인 대등적 대구 표현이 쓰여 졌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구적인 관용 표현 중에 중복된 대구 표현을 뺀 내용을 <표 3>에 제시한다.

표 3 대구적인 관용 표현 a 『번역노걸대』 b 『노걸대언해』

		선행절	후행절
대조적 대구표현	a	니황금이 귀 <u>다</u> 니르디 말라	빈소미 하 <u>니라</u>
	b	-	-
조건적 대구표현	a	천 리엿 나그네를 도히 보와 보내 <u>어(-면)</u>	萬里에 일흠을 던코져 흠이 <u>라</u>
	b	千里엿 나그네를 도히 보와 보내 <u>미(-면)</u>	萬里에 일흠을 던코져 흠이 <u>라</u>
대등적 대구표현	a	구의엔 인을 믿 <u>고</u>	아르매는 괴약을 미들 거 <u>시니</u>
	b	구의는 인신을 믿 <u>고</u>	스스는 연약을 미들 <u>써시니</u>

5. 나가며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쓰여진 『노걸대』 언해류의 문헌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에 초급 중국어 회화 교재로서 가장 권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노걸대』에는 107의 문단에 무려 18가지의 관용 표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용례 중에서 특징적인 예문에서 관용 표현이 시작되는 부분에 원문은 ‘常言道’로 일관하여 나타났으나, 언해문에서는 각 용례의 표기법이 ‘상넛 말소매 닐오되’, ‘常言에 닐오되’, ‘常言에 닐오되’, ‘상언에 니르되’로 각기 다르게 쓰여, 표기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대적으로도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에서 그 표기가 현저하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원문에서 쓰여진 관용 표현이 언해문에서는 삭제되어진 예도 살펴보았으며, 한어문 자체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여 쓰여 졌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조선어의 관용 표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통사의 형식적 특징으로 대구의 기법이 언해문에서는 많이 쓰여 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구 표현으로 대조적 대구 표현, 조건적 대구 표현, 대등적 대구 표현 등이 쓰였으며, 선행절과 후행절을 대등적 대구 표현으로 연결하면서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각각 조건적 대구 표현이 쓰여진 예 등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과제로 근대 국어의 통사적 분석을 위해 근대 국어에 관한 문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 시야를 넓혀 관용 표현에 쓰여진 통사적 내용을 중심으로 문법적으로 세분화하여 연구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조선시대에 민중이 언어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한 조선 고유의 관용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한어문의 언해문과 비교 분석할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아 연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명균 (2019) 「諺解類에 나타난 漢字語 曰의 翻譯에 關한 考察」 『한국문화연구』 9, 한국문화학회, pp.79-96.
- 김경열 (2017)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문법과 의미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0, 한국국어교육학회, pp.183-212.
- 문금현 (1996) 「관용표현의 생성과 소멸」 『국어학』 28, 국어학회, pp.301-333.
- 민현식 (2003)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어휘학회, pp.17-50.

박재연 (2002) 『中朝大辭典』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박성훈 (2012) 『朴通事諺解辭典』 대학사

박재연·최정혜 (2011) 「조선후기 중국어 회화서〈漢語〉의 속담에 대하여」 『어문
논집』 66, 민족어문학회, pp.141-170.

양오진 (1998) 『老乞大·朴通事研究』 대학사

—— (2010) 「老乞大·朴通事に 보이는 熟語의 표현에 대하여」 『中國學論叢』 30,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pp.53-78.

주경미 (2008) 「20 세기 초기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pp.1-158.

최창렬 (1999) 『우리속담연구』 일지사

<인용 원문과 언해 문헌>

『노걸대』 (미상 고려 말경)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번역노걸대』 (1510 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노걸대언해』 (1670 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인터넷 검색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korean.go.kr

박태권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634>

송기중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2634>

부 록

<『노걸대』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용례>

※ 『原本老乞大』 a 『翻譯老乞大 上下』 b 『老乞大諺解上下』⁶

1) 〈원문〉 前不著村, 後不著店。3b

a と b-없음.

<현대어> 앞으로는 村(마을) 다다르지 못하고 뒤로는 店(여관) 다다르지
못하다/ 앞뒤로 인적이 드물다/ 앞뒤로 목을 만한 곳이 없다(“환경이나
旅路가 삭막 함”을 나타냄)

⁶ 본문의 제시한 예문과는 달리 부록의 나열 순서는 언해문에 기재된 순서로 함.

- 2) 〈원문〉 常言道：馬不得夜草不肥，人不得橫財不富。 9b
- a- 상넛 말소매 날오디 머리 밤 풀 몬 머그면 솔지디 아니하고 사궤미 뵈 천곳/*橫財*/ 몬 어드면 가수며디 몬흐느니라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人不得橫財不富。’ (翻譯老乞大上 2a~32b)
- b- 常言에 날오디 물이 밤 여을을 엇디 못흐면 솔지디 못하고 사궤미 뵈 財物을 엇디 못흐면 가움여디 못한다 흐느니
 常言道 馬不得夜草不肥 人不得橫財不富。(老乞大諺解上 29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말은 밤 여물을 먹지 못하면 살이 찌지 아니하고 사람은 땀 재물(횡재)을 얻지 못하면 부유해지지 못한다 하였다
- 3) 〈원문〉 常言道：常做賊心，莫偷他物。 10a
- a- 상넛 말소매 날오디 당상 도족 막스물 막고 느미 것 도족 말라 흐느니
 常言道 ‘常防賊心，莫偷他物。’ (翻譯老乞大上 34a)
- b- 常言에 날오디상상의 도적 막음을 막고놈의 것 도적 말라 흐느니
 常言道常防賊心莫偷他物。(老乞大諺解上 30b)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항상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하였다
- 4) 〈원문〉 三人同行，小的苦。 10a
- a- 세히 혼 디 길 녀매 저르니 슈고흐느니라 ‘
 三人同行 小的苦’ (翻譯老乞大上 34b)
- b- 세 사궤미 흥씨 네매 저르니 슈고흐느니라
 三人同行 小的苦 (老乞大諺解上 31a)
 〈현대어〉 세 사람이 동행을 하면 나이 어린 사람(젊은 사람)이 고생을 한다
- 5) 〈원문〉 慣曾出外偏憐客，自己貪盃惜醉人。 12a
- a- 일즉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도이 나그내를 에엇비 너기고 나옏 수을 탐흐면 취헌 사궤물 앓기느니라
 慣曾出外偏憐客，自己貪杯惜醉人。(翻譯老乞大上 42a)
- b- 일즉 외방의 나든니기 니그면 일편되이 나그내를 에엇비 너기고 나옏 술을 탐흐면 취헌 사궤를 앓기느니라
 慣曾出外偏憐客 自己貪盃惜醉人。(老乞大諺解上 37b)
 〈현대어〉 나들이에 익숙한 사람이 나그네를 편애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취한 사람을 아긴다

- 6) 〈원문〉 飢時得一口, 強如飽時得一斗。12b
 a- 골픈 제 헛 입 어더 머구미 브른 제 헛 말 어둡두곤 더으니
 飢時得一口, 強如飽時得一斗。(翻譯老乞大上 43b)
 b- 골픈 제 헛 입 어더 먹으미 브른 제 헛 말 어둡도곤 나오니라
 飢時得一口 強如飽時得一斗 (老乞大諺解上 39b)
 〈현대어〉 배고플 때 한 입 얻는 것이 배부를 때 한 말(斗) 얻는 것보다 낫다
- 7) 〈원문〉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12b
 a- 쏘 아니 니르느녀 천 리엿 나그네를 도히 보와 보내여 만 리에 일후를 옴골 디니라
 却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翻譯老乞大上 44a)
 b- 쏘 아니 니르느냐千里엿 나그네를 도히 보와 보내미 萬리에 일후를 던코져 흠이라
 却不說 好看千里客 萬里要傳名。(老乞大諺解上 39b-40a)
 〈현대어〉 천리 가는 나그네를 잘 살펴 보내면 만리에 이름을 전하게 되리라
- 8) 〈원문〉 一客不犯二主。15a
 a- 헛 나그네 두 주인 저치디 몰홀 거시니
 一客不犯二主, (翻譯老乞大上 52b)
 b- 헛 나그네 두 주인을 적시디 못홀 써시니
 一客不犯二主, (老乞大諺解上 47b)
 〈현대어〉 한 손님은 두 주인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 한 고객은 두 주인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
- 9) 〈원문〉 休道黃金貴, 安樂最直錢。21a
 a- 황금이 귀하다 니르디 말라 편안호미샤 밍소미 하니라
 休道黃金貴, 安樂直錢多。(翻譯老乞大下 4a)
 b- 없음.
 〈현대어〉 황금이 귀하다 하지 말라, 편안함이 가장 값지다 하였다
- 10) 〈원문〉 家書直萬金。21a
 a- 쏘 아니 니르느녀 집 유위 일만 량 금이 쓰다 흐느니라
 却不道 ‘家書直萬金’。(翻譯老乞大下 4b)

b- 또 아니 니르느냐 家書 | 萬金 쓰다 흥느니라
 却不知道 家書直萬金 (老乞大諺解下 4a)
 <현대어> 家書(집에서 온 안부편지)가 만금 값이라 하였다

11) <원문> 千零不如一頓。22a

a- 즈은 뵈 거시 흥 무들기만 곱디 못흐니
 千零不如一頓 (翻譯老乞大下 8a)
 b- 일천 뵈 거시 흥 무들기만 곱디 못흐니
 千零不如一頓 (老乞大諺解下 7a)
 <현대어> 천 가지 날 것이 한 무더기 것만 못하다

12) <원문> 官憑印信, 私憑要約。25a

a- 구의엔 인을 믿고 아락매는 괴약을 미들 거시니
 官憑印信, 私憑要約。(翻譯老乞大下 19b)
 b- 구의는 인신을 믿고 스스는 언약을 미들 써시니
 官憑印信 私憑要約 (老乞大諺解下 17b)
 <현대어> 公의인 일은 官印(印信) 의거하고 私의인 일은 약속(계약)
 의거한다 하였다

13) <원문> 常言道: 老實常在, 脫空常敗。31a

a- 상넛 말스매 날오되 곱디식그니는 당상 잇고 섭섭흐니는 당상 패한다
 흥느니라 常言道 ‘老實常在, 脫空常敗.’ (翻譯老乞大下 43a)
 b- 상언에 니로되 곱디식흐니는 상상에 잇고 섭섭흐니는 상상에 패한다
 흥느니라 常言道 老實常在 脫空常敗 (老乞大諺解下 39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성실한 것은 항상 오래가고 허황한 것은
 항상 패한다 하였다

14) <원문> 缸投水裏出來, 旱地裏行不得, 車子載著有; 車子水裏去呵,
 水裏行不得, 缸裏載著有。31b

a と b-없음.

<현대어> 배는 물에서 나오면 육지에서 다니지 못하므로 반드시 수레에
 실어야 하고, 수레는 물에 들어가면 물속에서 다니지 못하므로 반드시
 배에 실어야 한다/ 배는 육지로 나오면 다니지 못하므로 수레에 실어야
 하고, 수레는 물속에 들어가면 다니지 못하므로 배에 실어야 한다

15) <원문> 一箇手打呵, 響不得有; 一箇脚行呵, 去不得有。31b

a と b-없음.

〈현대어〉 한 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한 발로 걸으면 가지를 못한다 하였다.

16) 〈원문〉 常言道：掩惡揚善。 31b

a- 상넛 말스매 날오티 사오나온 일란 그시고 도흔 일란 퍼낼 거시라
 흥느니라 常言道 ‘隱惡揚善。(翻譯老乞大下 44a)

b- 상언에 니르되 사오나온 일란 그이고 도흔 일란 들어나게 흥라 흥니라
 常言道 隱惡揚善。(老乞大諺解下 40a)

〈현대어〉 속담에 이르기를 나쁜 일은 덮어두고 좋은 일은 드러내라 하였다.

17) 〈원문〉 宜假不宜眞。 38a

a- 정히 거짓 거슨 맛당하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흥니라
 正是宜假不宜眞。(翻譯老乞大下 67a)

b- 정히 거짓 거슨 맛당하고 진짓 거슨 맛당티 아니흥니라
 正是宜假不宜眞。(老乞大諺解下 60b)

〈현대어〉 가짜 것이 마땅하고 진짜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진품보다
 짝퉁이 낫다

18) 〈원문〉 四海皆兄弟。 39b

a- 슝히 다 형데어니썩나 四海皆兄弟。(翻譯老乞大下 72b)

b- 四海 다 형데어니썩녀 四海皆兄弟。(老乞大諺解下 65b)

〈현대어〉 천하(四海)는 모두 한 형제이다

• 受付：2021年7月31日

• 修正：2021年9月20日

• 掲載：2021年9月30日

日本韓国研究 第1号

発行日 2021年9月30日

発行 日本韓国研究会

〒599-8531

大阪府堺市中区学園町1番1号

大阪府立大学 高等教育推進機構

電話 072-254-9655

メール(事務局) [jak.jimu\(at\)gmail.com](mailto:jak.jimu@gmail.com) *(at)は@に変更してお送りください。

ホームページ <http://jak.main.jp/> (入会手続きは[こちら](#))

編集 崔銀景 趙智英

日本韓国研究会 
Japan Association of Koreanology